

# 蒙山 德異와 高麗 人物들과의 交流

— 筆寫本 《諸經撮要》의 수록내용을 중심으로 —

南 權 熙\*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蒙山 德異의 法脈과 高麗 僧侶와의 交流 |
| II. 《諸經撮要》의 書誌的 分析 | 1. 法 脈                    |
| 1. 物理的 形態          | 2. 高麗 僧侶와의 交流             |
| 2. 本文의 構成          | V. 法門景致에 대한 분석            |
| III. 蒙山의 行蹟과 蒙山行實記 | 1. 體 制                    |
| 1. 蒙山 德異의 行蹟       | 2. 内 容                    |
| 2. 關聯 著述           | VI. 맺음말                   |
|                    | 參考文獻                      |

## I. 머 리 말

이 글은 中國 元代의 佛敎에 있어서 禪宗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蒙山 德異의 生涯와 著述 그리고 高麗人들과의 교류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종전까지의 이 분야 연구에서는 蒙山의 저술이 朝鮮 前期까지 많이 읽혀지게 된 이면에 이미 高麗末부터 여러 승려와의 교류가 있었다는 단편적인 사실이 알려져 있으나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자료는 본격적으로 高麗의 王室과 핵심적인 정치 인물들까지 포함된 교류의 사실을 찾아 볼 수가 있어 이를 정리하여 자료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 慶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文獻情報學科 助教授

1) 許興植, "蒙山德異(1232-1298?)의 行績과 年譜," 韓國學報, 第77輯 (1994. 겨울), pp. 220-226.

이 자료에 관하여는 이미 許興植<sup>1)</sup> 교수에 의하여 《韓國學報》에 일부가 논문과 함께 영인되어 출판되었으나 원자료에 대한 書誌的 사항의 전달에 오류가 있을것 같아 부득이 書誌的인 면을 추가하여 다루게 되었다.

필자가 이 자료를 구하게 된 것은 1994년 봄 시중의 서점에서 일단의 佛敎資料를 살피던 중에 일부가 낱장으로 체계가 없이 흩어져 있는 筆寫本 하나를 보게 되어 구입하게 되었다. 그 후 자세히 살펴보니 어느 정도의 연결과 복원이 가능하여 정리를 마쳤으며 表紙의 書名은 《諸經撮要》였다.

전체의 형태나 분량면에서 비록 부분적으로는 빠진 張이 있지만 그 내용의 중요성으로 일부분을 허교수에게 제공하여 공개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필자는 년전에 蒙山의 저술중의 하나인 《蒙山和尚六道普說：諺解》<sup>2)</sup>와 《直註道德經》<sup>3)</sup>을 발굴하여 소개를 하면서 그의 행적을 일부 정리하였지만 역시 부족함을 느끼던 차에 비록 원자료는 아니지만 이 자료의 발견은 高麗와 元의 佛敎交流史 및 蒙山의 行蹟 연구에 대단히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 분야의 연구에서는 許興植<sup>4)</sup> 교수 이외에 閔永珪<sup>5)</sup>, 韓基斗<sup>6)</sup> 교수 등의 先行研究가 있으며 그의 저술중에서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와 《四法語》등에 관한 국어학계의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 오래동안 계속되어 왔다.

## II. 《諸經撮要》의 書誌的 分析

### 1. 物理的 形態

- 2) 南權熙, "蒙山和尚六道普說 諺解本の 書誌的 考察," 어문논총(경북어문학회) 제25호 (1991), pp. 63-74.
- 3) 上掲書, p. 6.
- 4) 許興植, "高麗에 남긴 鑲山瓊의 行狀," 韓國學報, 第39輯 (1985. 여름), pp. 118-130.
- 5) 閔泳珪, "蒙山德異와 高麗佛敎," 六祖壇經의 世界, 서울, 民族社, 1989, pp. 11-19.
- 6) 韓基斗, "休休庵坐禪文 研究," 韓國文化와 圓佛敎思想: 文山 金三龍博士 華甲 紀念, 裡里,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5, p. 649-677.

이 책의 크기는 25.7cm × 16.6cm이며 전부 48張 1책으로 된 五針眼 제본의 東裝本이나 겹표지는 없이 본문과 같이 쓰여진 한지에 《諸經撮要》로 표기되어 있고 뒷표지는 없다. 본문은 罨線없이 筆寫되었으며 字行字數는 不定이고 書體는 세련되지 못하였지만 글자는 淨書되어 있다.

이 자료의 전래에 대하여 검토할 때 그 底本이 되는 자료는 木板本이었거나 아니면 木板本 板刻을 전제로 한 版下本일 가능성이 높아서 본문 중에 《法門景致》의 끝에 붙은 蒙山の ‘後序’에 이어 高麗의 了庵元明이 쓴 ‘伏觀’에 의하면,

### 伏 觀

老和尚見 松十株 從地湧出 立于庵前 聞其故則曰

自高麗來 和尚以序以頌 示之此事 異於尋常

亦入道程節 始終之龜鑑也 庸是抽衣 資刊板

以廣其傳 門人 高麗國長老 了庵元明 題

라 하여 蒙山이 入道의 과정을 열 그루의 소나무에 비유하여 설명하였음을 밝히고 이러한 본보기를 板에 새겨서 널리 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짐작하건대 木板本이 있었거나 간행되지 못한 채 전해지게 된 版下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書體에 있어서는 여러 곳에서 ‘華嚴’을 ‘花嚴’으로 쓴 것으로 보아 원본은 高麗時代에 가까운 자료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다른 특징이라면 菩薩을 악자로 윗획 ‘+’만 살려서 표기하고 있고 筆寫時에 底本으로 사용된 책 역시 완전하지 않아서 ‘蒙山行實記’에 ‘十字落’으로 小字로 표기하고 여백을 두어 처리한 것으로 보면 당시 전존된 제본의 상태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빴을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여러 곳에서 脫字를 보충하여 넣거나 誤字를 고친 곳이 많이 보이므로 이러한 현상 역시 底本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佛腹藏 資料의 일부였던 것으로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고 상단부분에 腹藏資料에서 종종 보이는 바와 같이 송진으로 얼룩진 곳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파손된 상단의 일부는 腹藏時에 부분과 낱장으로 뜯어서 넣었던 까닭에 손상된 부분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의 48장까지가 완전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연결부분이 있을 것인가는 알 수 없으나 전체의 체제로 보아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또 필사된 본문의 낱장 크기도 간혹 짧은 것이 섞여 있고 楞嚴經을 다룬 앞부분에는 윗부분의 글자가 잘려나간 곳이 여러 곳이며 중간부분에는 앞뒤장이 서로 층이 나므로 이는 처음부터 책을 제본하고 그 위에 필사한 것이 아니라 펼쳐진 각장에 필사한 뒤에 반을 접어서 연결하고 재단한 뒤 제책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에 책으로 매패 짧은 것은 종이를 덧붙여 연결하여 서로 크기를 같도록 만들었으며 그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본문의 書體와 먹빛도 부분적으로 달리 나타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紙質은 楮紙이며 굵은 세로 발의 폭이 2.5-3.3cm로 壬亂前의 것으로 여겨지며 몇 장에 걸쳐 이음종이를 사용한 것이나 본문중에서 쓰여진 口訣字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대체로 中宗以前에 筆寫된 것으로 판단된다.

## 2. 本文의 構成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아서 앞부분은 여러 經典을 축약하여 주요한 내용을 표로 만들거나 卷次로 나누어 약술하고 있으며 ‘蒙山行實記’이하는 별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체의 구성〉

- |                 |            |
|-----------------|------------|
| 1) 題目 : 諸經撮要    |            |
| 2) 目次 : 1. 圓覺綱要 | 29. 傳上座 秉炬 |
| 2. 楞嚴綱要         | 30. 思書記 秉炬 |
| 3. 華嚴品目         | 31. 隆上座 秉炬 |

- |                       |               |
|-----------------------|---------------|
| 4. 法花經品目              | 32. 通上座 秉炬    |
| 5. 妙法蓮花經要解序注          | 33. 通上座 骨     |
| 6. 法花大旨               | 34. 霽上座 秉炬    |
| 7. 釋迦佛總偈              | 35. 方龍圖宣教起棺   |
| 8. 花嚴序 澄觀 述(口訣)       | 36. 五家宗旨頌     |
| 9. 大方廣佛華嚴經 龍符(樹)菩薩略撰偈 | 37. 又來求索再成五頌  |
| 10. 大乘妙法華蓮經 寶掌菩薩略讚偈   | 38. 方路分刺血書花嚴經 |
| 11. 源佛說教(口訣)          | 39. 法門景致      |
| 12. 蒙山行實記             | 40. 新松        |
| 13. 徑山喝石巖             | 41. 戒松        |
| 14. 能仁翻蓋羅漢閣           | 42. 定松        |
| 15. 鍾                 | 43. 慧松        |
| 16. 魚                 | 44. 行松        |
| 17. 鼓                 | 45. 願松        |
| 18. 潮侍者鎖龕             | 46. 靈松        |
| 19. 監火行者祖聞 秉炬         | 47. 妙松        |
| 20. 書狀行者祖永 秉炬         | 48. 智松        |
| 21. 住淨人 秉炬            | 49. 古松        |
| 22. 瑠上座 秉炬 (附: 제목불명)  | 50. 後序        |
| 23. 休休庵銘              | 51. 伏觀        |
| 24. 註般若心經序            | 52. 出山相       |
| 25. 英                 | 53. 泛蘆達摩      |
| 26. 絕翁                | 54. 六念頌       |
| 27. 布袋和尚              | 55. 達摩大師歸寂    |
| 28. 齡侍者起龕             | 56. 法體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반부는 圓覺經, 楞嚴經, 華嚴經, 法華經을 중심으로 그 大要를 밝혀 제목이 의미하는 諸經撮要의 의미가 충분히 살려진 것으로 보여진다. 대개 이러한 체제로 구성된 불교자료중에는 諸經綱要, 諸經要訣, 諸經要義, 諸經要集, 諸經樞要, 諸經會要, 諸經會編要 등이 있고 이 중에는 六經合部の 내용을 지닌 諸經要訣과 再雕大藏經의 일부인 諸經要集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내용과 체제로 표를 이용하거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특히 이런 종류중에서 諸經撮要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와 제목이 같은 책이 東國大學校 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으나 목록<sup>7)</sup>에 의하면 그 책은 朝鮮後期에 筆寫되었고 表紙의 書名은 諸經會要이며 내용도 본 책과는 전혀 다른 체계로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개의 다른 자료인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료에서는 이러한 앞부분의 체제와 전혀 다른 <蒙山行實記>이하 뒷부분이 합철되어 있는 바 이는 筆寫者가 앞의 것을 필사, 정리하고 별도로 뒤의 내용을 다른 자료들에서 평소 抄出하였던 것을 合綴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내용중에서 蒙山과 관련된 것은 약 40개항에 이르고 대체로 이전의 다른 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 중 休休庵銘은 蒙山の 주 활동장소로서 또 休休庵坐禪文과 관련이 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연대기적인 기록으로 <法門景致>가 元貞丁酉仲春(사실은 大德元年: 1297, 2)에 이루어지고 그 後序는 元貞3年(사실은 大德元年: 1297年, 2月2日)에 蒙山에 의하여 쓰여져 高麗의 公主를 비롯한 大臣, 名士들이 그를 찾은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자료에 대하여 許興植교수는 필자가 제공한 23매의 기록으로 잠정적으로 <蒙山和尚語錄草稿>라고 명명하였지만 앞서의 書誌的인 검토를 통하여 이

7)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古書目錄, 서울, 同圖書館, 1981, p. 61.

자료는 2차자료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朝鮮時代に 간행된 《蒙山和尚法語略錄》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諺解까지의 과정을 짐작한다면 먼저 《蒙山和尚法語》의 草稿가 있고 그 刊本이 있으며 諺解를 하면서 抄錄하여 ‘略錄’이란 명칭이 들어 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여러 판본의 《蒙山和尚法語略錄》과 《禪門撮要》에는,

- |               |             |
|---------------|-------------|
| ① 崱山正癡禪師示蒙山法語 | ② 蒙山和尚示衆    |
| ③ 蒙山和尚示古原上人   | ④ 蒙山和尚示覺圓上人 |
| ⑤ 蒙山和尚示惟正上人   | ⑥ 蒙山和尚示聽上人  |
| ⑦ 蒙山和尚無字十節目   | ⑧ 休休庵主坐禪文   |
| ⑨ 蒙山和尚示衆      |             |

등과 같은 내용이므로 본 연구의 자료와는 일치되는 것이 없으므로 朝鮮時代に 抄錄을 하고 諺解하여 간행했다면 이 자료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원자료가 출현하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 Ⅲ. 行蹟과 蒙山行實記

#### 1. 蒙山 德異의 行蹟

蒙山 德異의 저술이나 사상이 高麗末에서부터 朝鮮 中期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기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밝혀진 바가 별로 없었던 터에 이 자료의 발굴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보충되었다.

蒙山 德異는 元나라의 스님으로 생몰 연대를 알 수 없다고 하거나 또는 ‘1231?’<sup>8)</sup>로 표시하는 등 대체로 부정확한 추정을 하고 있다. 아마 이의 근거로 사용된

8) 禪學大辭典編纂所 編, 新版禪學大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85. p.945.

자료는 《禪關策進》이며 그 중 〈蒙山異禪師示衆〉條에서 《六祖大師法寶壇經》의 간행을 언급하면서 작성한지 30년 되는 해인 1290년에 책을 간행한다는 기록에 의거하여 추정되어 왔던 것<sup>9)</sup>이다.

그의 俗姓은 盧씨이며 江西省 廬陵道 時陽(또는 瑞陽) 高安縣에서 태어나 蘇州 承天의 天童 如淨의 法嗣 孤蟾 如瑩의 문하에 들어가 배우기를 시작하여 徑山에서 虛堂 智愚의 가르침을 받고 또 福州 鼓山에서 菴山(또는 菴山) 正凝禪師에게 투신하여 깨달음을 인정받고 법을 이은 후 江蘇省 毘山(또는 毘山)에서 활동하였다.<sup>10)</sup>

이에 추가하여 《蒙山行實記》에서는 父는 正達이며 母는 鄒氏로 나이 14세때에 스님의 《心經》 읽는 소리에 大神呪의 뜻을 물었으나 스님은 洞山の 竹巖 印을 소개하므로 찾아가 뜻을 구하니 웃으며 말하기를 뒷날 찾아오라함에 돌아오고 말았다. 16세가 되어서는 荊襄에서 벼슬하는 외삼촌에게 가서 공부를 하고 관례를 올렸다. 재능이 많고 뛰어나 세사의 뜻에 연연하지 않고 浩然을 기르고 책을 읽어서 道教와 佛教의 경전에까지 섭렵하였다. 33살에 蜀으로 들어가 重慶에 머물던 중 병이 들어 사경을 헤멜 때 출가하기를 서약하였다.

承天에서 孤蟾 如瑩의 문하에 들어가 배울 때 師가 묻기를 죽은 스님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수일동안 참선을 하던 중 콧숨이 떨어지는 소리에 그 자리에서 크게 깨치게 되었다. 이 후 呂旌과 李交와의 교류에서 頌을 남기고 이 때부터 天寧 雪巖 등에 入室하여 수행을 계속하다가 徑山の 虛堂 智愚를 만나 3년을 보낸 후 禺(廣州) 蔥嶺의 宋雲을 거쳐 耶堂에 이르러 正凝禪師<sup>11)</sup>를 추천 받아 閩 땅에 들어가 여름부터 菴山擬에게 '狗子'의 화두로 반복하여 참구하였으나 이루

9) 園泳珪, 前掲論文, p.13.

10) 卍字續藏經, 142 〈增集續傳燈錄 卷四〉臺北, 新文豐出版社, 1983. pp.832-833.

11) 元대의 스님으로 생몰일은 알 수 없으며 舒州大湖 李氏로 알려져 있다. 17세에 부모를 여위고 冀州 雙泉 瑛禪師에게 출가하여 無明 性禪師를 배알하고 홀연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 다시 縣으로 들어가 孤峰 德秀禪師에 의지하여 반년만에 入室하였다. 후에 鼓山에서 법을 펴고 蒙山에게 법을 전하였으며 84세까지 살았다.



지 못하다가 해를 지나 봄에 돌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의문이 모두 풀리게 되었다. 이에 癡이 蒙山에게,

光明寂照 遍河沙 (광명이 강과 모래 (항하사)에 두루 비추전만)  
豈不是 張拙秀才 (어찌 수재에게는 미치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禪床을 번쩍들어 뒤집고 癡을 잡고 말하기를

那裏是 這僧話墮處 (어느 곳이 이 중이 말하는 떨어지는 곳입니까)

하고 대답하고 손으로 癡의 입을 막고 또 물기를

言着說在甚麤處 (불공하고 거짓된 말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再犯不容 (다시 범하는 것을 용납치 않겠습니다)

등등 계속되는 선지식의 교감을 볼 수가 있어서, 癡이 이에

擬頌：雲門指怪 不勸自敗 (운문이 괴를 가리켜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다)  
蒙山：咬子下人 韓盧<sup>12)</sup>逐塊 (자식을 물어 남에게 주니 한로가 귀신을 쫓은 것입니다)

癡：柱杖不在 別時與一去頁 (주장이 없으니 다른 때 한 턱뼈를 주리라)

蒙山：要用即借和尚 (쓰임이 있으면 화상에게 빌릴 것입니다)

또 어느 날 癡이 말하기를,

癡：臥雲深處 不朝天 因甚到者裏 (구름 깊은 곳에 하늘에 해가 없으니  
이에 오는 자도 보이지 않구나)

蒙山：邦有道即見 (나의 도인즉 보입니다)

이에 正癡이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때에 陳公과 杞窓 趙公, 竹溪 林公 등이 蒙山을 모시고자 하였으나

12) 韓盧：戰國時代에 韓나라에서 있었던 名犬의 이름

허락하지 않으니 正凝이 衣拂을 전해주어 떠나 衡廬<sup>13)</sup>를 거쳐 뚝에 이르게 되었으며 여기서 韜密, 萬壽, 石樓, 明伺, 機傑등을 만났다. 이 과정은 1265년부터 1274年間으로 閩에 머물면서 佛敎와 道敎의 이치를 窮究하였다.

그 뒤 混一大丞相 伯顔이 찾아와 禪에 대하여 묻고 嘉興의 澗山으로 와주기를 청하였지만 고사하고 몇년을 지나 承天의 覺庵에서 眞延師와 함께 分座하던 중 오래지 않아 1277年 丁丑에 이르러 檀越 素軒 蔡公이 지어준 암자에 기거하였다. 그 암자의 편액을 休休, 別號를 絕牧叟라 하였고 은거하여 배움을 청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속된 情을 버리고 모름지기 道에 뜻을 세워 큰 깨달음으로써 마땅히 入門하여 깊이 궁리하고 미혹함을 洞澈하는데 이르기를 항상 경계하였다. 이에 실친 항목으로,

毋得少以自謾 毋務速以遽畫

毋銜已以起傲 毋逐末以忘源

汝志匪劣 式不器于成 汝行匪懈 式詣于極三

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중에서 蒙山이 ‘趙州無字’의 화두로 入參을 한 내용은 기록에 따라서는 각각 如瑩과 正凝으로 달리 표현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雪巖, 退耕, 虛舟 등 여러 고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sup>14)</sup>

이상에서 살펴본 <蒙山行實記>에 나타난 正凝과의 관련 내용 이외에도 朝鮮時代에 간행된 <蒙山和尚法語略錄>, <四法語>에도 <旣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의 내용으로 凝이 蒙山에게 信과 無字로 수행할 것을 지도하는 것이 있으며 韓基斗<sup>15)</sup>에 의하여 밝혀진 正凝을 만나기 전인 虛舟와의 대화 등이 알려져 있다.

13) 衡廬: 衡山 즉, 中國 湖南省 衡山縣과 廬山 즉, 江西省 九江府를 가리킴.

14) 卍字續藏經, 145. <傳燈存稿 卷五>, pp.122-123.

15) 韓基斗, 前揭論文, pp.652-653.

한편 같은 거처의 옮김에 따라 그를 지칭하는 이름도 蒙山, 古筇, 殿山和尚, 休休庵主 등 여러가지로 전해지고 있는 바, 蒙山은 廬陵道 蒙山이라는 지명에 따라서, 古筇 역시 그의 고향 時陽이 당나라 때 筇州라 하였으므로 붙은 이름<sup>16)</sup>이었다. 殿山和尚의 殿山은 깨달음을 얻은 뒤 거처한 松江府의 지명이며, 承天의 覺庵을 나와 素軒 蔡公이 제공하여 거처한 사찰의 이름이 平江府 蓮湖橋의 休休庵<sup>17)</sup>이기 때문에 休休庵主라고도 불리었다. 그밖에 絶牧叟<sup>18)</sup>라는 호도 가끔 사용되고 있다.

그의 入寂時期를 추정하면 태어난 시기가 1233년이고 1295년부터 高麗人들과 교류가 빈번하기 시작하여 1297년 4월 李承休에게 法語를 보내는 것까지 직접 교류의 마지막 기록이며 그의 제자 鐵山 紹瓊이 고려에 온 것이 1308년이므로 그의 入寂한 시기는 1310년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

## 2. 關聯 著述

蒙山 德異의 저술 내지는 관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그의 46세가 되던 1278년에 道德經을 直註하였으며 至元24年(1287)에 《直註道德經》이 尚州 路 無錫縣 梅王居士 坦의 도움으로 吳中 休休庵에서 간행되었으며 至元27年(1290)에는 《六祖壇經》을 재편하고 유통에 노력하여 일반적으로 ‘德異本’이라 불리는 것<sup>19)</sup>이 되었다.

그리고 편찬의 정확한 시기를 모르는 것으로 《蒙山和尚六道普說》과 《蒙山和尚

16) 休靜, 깨달음의 거울: 禪家鑑藏, 法頂 譯, 서울, 佛日出版社, 1990, p. 40.

17) 卍字續藏經, 142, 同面.

18) 德異 述, 直註道德經, 智異山, 斷俗寺, 中宗22年(1527): 佛說四十二章經의 序文 등에서 蒙山和尚의 別號가 絶牧叟임을 밝히고 있다.

19) 朴相國, “現存 古本을 통해 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의 流通,” 書誌學研究, 第 4輯(1989, 12), p. 141.

六道普說：諺解》<sup>20)</sup>, 《蒙山和尚普說》<sup>21)</sup>과 고려대학교 晚松文庫 ‘貴重本 198’로 지정되어 있는 목판본 《蒙山十法界普說》이 있고, 法師인 崙山正凝禪師의 내용과 함께 편찬된 《蒙山法語》, 《蒙山和尚修心訣》<sup>22)</sup>, 《增修禪教施食儀文》<sup>23)</sup>, 《蒙山和尚法語略錄》 등이다. 그밖에 朝鮮에 전래되어 일부가 抄錄되어 諺解로 이루어진 《四法語》 등이 있다.

단행본이 아닌 내용으로는 至元23年(1286)에 쓴 《佛說四十二章經》의 序, 1290년에 쓴 《六祖大師法寶壇經》의 서문, 《蒙山和尚施食儀文》<sup>24)</sup>, 《懶翁和尚行狀》에 기록된 懶翁과의 문답, 益齋亂藁에 나오는 慧鑑國師 萬恒의 文偈에 화답한 기록<sup>25)</sup>, 寶鑑國師 混丘의 호를 蒙山이 《無極說》을 보내 ‘無極’이라 붙이게 한 것<sup>26)</sup> 등이다. 또 《東安居事文集》<sup>27)</sup>에도 《上蒙山和尚謝賜法語》, 《和尚所寄法語》등에서도 三轉語와 法語를 李承休에게 준 기록이 전하고 있다.

이 중 懶翁과의 문답은 이미 蒙山이 타계한 후의 사실이므로 직접적인 교류가 아닌 간접적인 기록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慈鑑國師 萬恒(1259-1315)에게 蒙山이 10수의 偈를 지어 화답하였거나 古潭이라는 호를 지어준 것과는 시기면에서 일치하고 있고, 蒙山이 混丘(1250-1322)에게 ‘無極說’을 보낸 시기가 混丘의 명성이 중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忠宣王 즉위년(1308) 이후라고 추정<sup>28)</sup>되고 있으므로 역시 蒙山은 萬恒이나 混丘보다도 더 빠른 시기에 활동한 승려이다.

20) 南權熙, 前掲論文, pp. 63-74.

21) 吾靖 等輯, 蒙山和尚普說, 明抄本, 4卷 1册: 北京圖書館古籍善本書目, 子部, 北京圖書館編,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7. p. 1615. (全5册)

22) 최현배, 한글갈, 京城, 正音社, 1940. p. 171

23) 德異 修註, 增修禪教施食儀文(壬亂以前), 1册(31張), 東國大所藏.

24)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종의 蒙山和尚施食儀文, 清洪道 夫餘, 道〇〇, 木板本 1책, 筆者所藏.

25) 李齊賢, 益齋亂藁, 鷄林府, 崇禎丙子後57年 癸酉, 卷7, 第7張 앞.

26) 上掲書, 第10張, 앞.

27) 李承休, 動安居士文集(雜著), 서울, 景仁文化社, 1993. 影印本, pp. 209-214.

28) 金相鉉, “三國遺事의 書誌學的 考察,”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城南, 同院, 1987. pp. 41-42.

#### IV. 蒙山 德異의 法脈과 高麗 僧侶와의 交流

##### 1. 法 脈

蒙山이 활동하던 시기는 중국의 元代로 太宗이 1234년에 金을 멸망시킨 다음 世祖(1260-1295)가 1276년에 南宋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며 喇嘛敎를 국교로 하여 功德을 닦고 經을 刊行하여 誦하고 祈禱하던 때로 皇親에게 戒를 주는 등 世祖 당시에 102種의 행사에서 成宗에 이르러 500餘種으로 증가<sup>29)</sup> 되는 崇佛의 시대였다. 그가 거주하던 南宋 지역 중 杭州에 世祖가 江南釋敎總統所를 설치하여 불교 교단을 확일적으로 통괄하였으나 이 후 文宗에 이르러 統攝制度가 개혁되고 또 부활된 宣政院이 장악하게 되었다<sup>30)</sup>. 이 宣政院 아래에는 1291年 당시 전국의 사찰이 42,318區가 있었으며 이에 소속된 승려 수는 213,148명으로 거대한 사원경제를 이루고 있었다<sup>31)</sup>.

이 시기의 불교에 있어서 특색은 元代에 시작하여 끝난 帝師制度<sup>32)</sup>가 있어서 八思巴 등이 막강의 권력을 행사하고 文字를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 禪宗이 가장 흥하여 그 중 印簡, 子聰, 至淵<sup>33)</sup> 등 臨濟禪에 속하는 사람들이 황제의 곁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불교의 흥隆에 진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江南이 옛 南宋지역에서는 白蓮敎, 白雲宗, 頭陀宗과 같은 불교신앙의 유파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고<sup>34)</sup> 동시에 道敎 역시 全眞敎와 正一敎로 교세가 점차 발전하여 憲宗5年(1255)에 이르러 佛寺를 점거하는 사태가 일어나 少林寺의 福裕와 道士 李志常과 세 차례 토론을 벌인 끝에 불교의 승리로 끝이 나자 도교의

29) 郭明, 中國佛敎簡史, 福建, 福建人民出版社, 1990. p.327.

30) 野上俊靜 外, 中國佛敎史概說, 梁銀容 譯, 裡里,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4. p.172.

31) 郭明, 前掲書, p.332.

32) 郭明, 宋元佛敎, 福建, 福建人民出版社, 1985. p.186-187.

33) 野上俊靜 外, 前掲書, p.172.

34) 鎌田茂雄, 簡明中國佛敎史, 鄭彭年 譯, 上海, 上海譯文出版社, 1986. pp.284-285.

道德經을 제외한 모든 책이 금지 되었다<sup>35)</sup>. 즉 蒙山은 그가 주로 활동을 하던 시기로 볼 때 이미 불교의 세력이 커진 다음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1287년 그가 저술한 《直註道德經》은 이미 열세에 처한 道敎를 포섭하고 불교의 입장에서 유교, 도교, 불교를 융합시키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시대적, 종교적 상황에서 蒙山은 臨濟義玄 이후 楊岐方會의 파로서 甌山正凝禪師를 스승으로 하고 鐵山紹瓊을 제자로 두었으며 그 맥은 다음과 같다.

#### 〈蒙山 德異의 法脈〉

臨濟義玄(787-866) — 興化存獎(        -924) — 南院慧顒(-925-931) — 風穴延沼(896-973) — 首山省念(926-933) — 汾陽善昭(945-1022) — 石霜楚圓(787-1040) — 楊岐方會(996-1049) — 白雲守端(1024-1072) — 五祖法演(1024-1104) — 開福道寧(1053-1113) — 大滄善果(1079-1152) — 大洪祖證 — 月林師觀(1143-1166) — 孤峯德秀(        ) — 甌山正凝(-1257-) — 蒙山德異(1233-13?) — 鐵山紹瓊 — 香巖思聰

이러한 맥을 통하여 臨濟宗은 臨濟의 禪思想 즉 黃檗과 같이 生佛不二的 입장에서 無心을 중시하고 無事를 종으로 하는 사상을 가지고 전해지다가 方會에 이르러 一切諸法은 모두 佛法이며 百草樹木은 大獅子吼를 짓고 麻詞般若을 연설하며 三世諸佛은 모든 사람의 각근 아래 있어서 大法輪을 굴린다고 하는 楊岐派의 기본 사상을 蒙山 德異가 이어 받았다.

또 이 南宋 臨濟宗의 사상이 고려말 고승의 방문이나 교류를 통하여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조선시대에 들어와 역시 臨濟宗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信眉 등에 의하여 맥을 잇고 蒙山의 저술이 많이 유통하게 되었다.

35) 上揚書, pp. 283-284.

## 2. 高麗 僧侶와의 交流

이미 앞에서 蒙山의 저술을 언급하면서 南中國에 있던 그가 고려의 萬恒, 混丘와의 서신을 통한 교류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1298년에는 상인을 통하여 萬恒에게 《六祖大師法寶壇經》을 보내어 1300년에 高麗에서 간행, 유포되게 하였다.

그밖에 간접적인 교류는 중국으로 법을 구하여 찾아가 懶翁이 1350년에 休休庵을 찾아 가고 1364년에는 眞覺國師 千熙(1307-1382)가 休休庵에 이르러 밤인데도 蒙山 眞堂이 발하는 빛을 보았다고 하니 그 역시 蒙山의 유업을 흠모하는 등 臨濟宗僧의 영향을 받은 점에서도 교류의 자취를 알 수가 있다.

또 惠諶의 법손인 圓明國師 冲鑑(1274-1338) 역시 臨濟宗과 깊은 관련을 가져서 南中國에서 蒙山의 제자인 鐵山 瓊禪師의 도행이 높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귀국하여 삼년동안 高麗에 머물게 하였다. 이 때 鐵山 紹瓊은 忠烈王30年(1304) 가을에 와서 同王32年(1306) 가을에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sup>36)</sup>을 卷末에 친필의 跋을 붙여 간행시키고 그 해 元으로 돌아갔다. 그 책은 書體나 折帖式의 형태였던 점으로 미루어 紹瓊이 직접 가져왔던 책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당대의 高麗 승려들이 蒙山과 그의 제자에 대하여 높은 예를 표하고 있었으니 高麗말까지의 臨濟 禪風이 유지되면서 蒙山의 저술 역시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高麗말부터 전파되어 朝鮮初期로 이어졌으나 초기의 억불정책으로 제대로 정리될 여유를 갖지 못하다가 世祖에 이르러 刊經都監의 활성화, 信眉의 등장과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다음 章에서 다루어질 《法門景致》에는 蒙山의 생전에 이미 高麗의 公主와 大臣, 名士등 열명이 그를 찾았으며 그 밖의 여러 僧侶들과 교류한 사실이

36)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 高麗 木板本. 6行16字. 個人所藏, 國立中央圖書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등에 所藏

卷末 成序: 翟曇老人架鐵船…大德丙午(1306)秋瀟湘古楞故人 紹瓊 敬題

많이 나타난다. 특히 高麗나 三韓에서 왔다고 언급된 사람은 乙未(1295) 겨울에 온 了庵 元明長老, 覺圓上人, 覺性上人, 妙孚上人 등 여덟 사람과 丙申(1296) 여름에 돌아간 仲孚上人 등으로 그 중에 覺圓上人是 〈蒙山和尚法語略錄〉에 ‘蒙山和尚示覺圓上人’이란 제목으로 많이 인용되어 나온다.

‘蒙山和尚示覺圓上人’의 障에서 蒙山은 참선은 모름지기 祖師關을 깨물어야 하며 趙州의 ‘狗子無佛性’의 진면목을 깨치기 위하여 話頭를 들 때의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覺圓上인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여 인용된 覺圓上인이 高麗에서 1295년 겨울에 찾아간 사람이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朝鮮時代의 〈蒙山和尚法語略錄〉의 수록자료 선택에 있어서 다른 자료보다도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되어 수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蒙山과 高麗佛敎중 臨濟宗과의 접맥은 大鑑國師 坦然(1069-1158)이 育王介諶의 法을 받아 전한 이래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선행의 연구에서는 高麗初부터 臨濟禪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긴 했으나 그것이 지속적인 전통을 갖고 발전하지는 못하였고 高麗末에 이르러 太古(1301-1382), 懶翁(1320-1377), 白雲(1298-1375) 등 三師가 본격적으로 臨濟禪을 수용하여 그 후 韓國 禪의 새로운 전통이 세워지게 되었다<sup>37)</sup>고 하였다.

물론 본격적인 臨濟禪의 수용에는 그들의 영향이 지대하였을 것이나 〈法門景致〉 등의 자료를 볼 때 그 이전에 이미 王室에서의 비호와 조정에서의 수용이 전반적인 현상으로 특히 蒙山을 중심으로 한 楊岐派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37) 徐閔吉, “高麗末 臨濟禪의 受容,”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院 編, 韓國禪思想研究,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4. p. 208.



## V. 法門景致에 대한 분석

### 1. 體 制

이 부분은 전체의 筆寫本 중에서는 일부에 해당하지만 體制로 보아 먼저 蒙山の 序가 있고 이어 十松에 관한 내용을 入門에 비교하고 이어 頌을 첨부시켰다. 본문 의 뒤에는 역시 蒙山の 後序가 있고 跋에 해당하는 ‘伏觀’(공경하여 우러러 봄)에 ‘門人 高麗國長老 了庵元明 題’가 있어서 완전한 한권의 단행본 체제를 갖추고 있다. 더구나 이 내용이 入道の 龜鑑이 되므로 판에 새겨서 널리 전하고자 한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완전한 단행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內 容

#### 1) 序

蒙山은 丁丑(1277)年 여름부터 澗山の 일을 마치고 中吳의 休休庵이라는 작은 庵子에 머물러 쉬고 있었다. 그가 63세가 되던 高麗 忠烈王21年(1295) 겨울에 高麗에서 了庵元明 長老와 覺圓上人, 覺性上人, 妙孚上人 등 8사람이 찾아가 같이 지내다가 忠烈王22年(1296) 여름에 仲孚上人 등 4사람은 돌아 갔다.

그 해 겨울 萬壽上人이 蒙山에게 가서 전하기를 高麗國 內願堂大禪師 混丘, 靖寧院公主 王氏 妙智, 明順院公主 王氏 妙惠, 前都元師 上洛公 金方慶, 侍仲 韓公康, 宰相 廉公承益, 宰相 金公昕, 宰相 李公混, 尚武 朴公卿, 尚武 柳公裾 등 여러 사람이 재삼 만나고자 하는 뜻을 전하여 오프로 休休長老가 멀리 上庵에서 安居하고 있을 때라 나누어 施를 베풀었다. 蒙山은 답을 하지 않고 萬壽上人을 청하여 了庵長老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 밤 문앞을 보니 소나무가 열그루가 있는 바 저마다 땅을 따라 솟아 나니 그 모양이 위엄이 있고 각각 특징을 갖추고 있어 서로 같지 않으니 서있는 사람처럼 敬重이 있다. 내가 그 까닭을 물으니 여러 소나무가 답하기를,

가까이의 高麗에서 사람이 와서 了庵과 休休主人 만나보기를 청한다하여 내가 묻기를 이름은 있으나 답이 아니었다. 그 열그루의 소나무는 新松, 戒松, 定松, 惠松, 行松, 顯松, 靈松, 妙松, 智松, 古松이다.

그리고 蒙山은 그와 만나기를 원하고자 하면 다음의 三轉語를 푸는 것에 따라 入門을 허락한다고 하니 모두 화두를 들기를 원하였다. 이에 蒙山이 내린 垂語는 다음과 같아서,

첫째, 어제 밤에 작은 벌레가 동해의 물을 들이 빨아 다 말려 버렸다. 거기 살던 새우와 게와 어룡은 어디서 편히 살 수 있겠는가?

둘째, 해파리는 色究竟天에 올라가 摩醯首羅王의 눈 속에서 춤을 추니 摩醯首羅王은 이에 더욱 볼 수가 없었다.

셋째, 蓮湖橋는 모든 사람을 直指하여 눈을 뜨게하나 사람은 이로 인하여 더욱 우물로 떨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의 세가지 물음이었으나 이러한 물음에 모두 답할 수 없었다. 이에 蒙山이 답을 내려 “내가 그 문밖의 네 성인이 찾아와 쓰는 것을 보니 찬탄할 만 하고 찾아온 여섯 사람은 평범한지라 모두 見拜하지 못한다” 하였다.

이어 묻기를, “듣건대 열그루의 특이한 소나무들은 高麗로부터 온 것이라 땅을 따라 솟았지만 네 성인은 모두 보이고 우리들 여섯 평범한 사람은 業障이 무거운 까닭에 눈이 있어도 우러러 보지 못합니다. 감히 청컨대 和尚께서는 자비를 보여주소서” 하였다.

이러한 여섯 사람의 청에 따라 蒙山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실로 믿음이 있어서

마땅히 頌을 내어서 이에 서문으로서 각각 보태니 바라건대 너희들은 믿음을 바르게 하고 눈을 트이게 하여 玄妙를 깨치도록 하라”는 가르침으로 十松의 頌을 보태고 이를 元貞 丁酉(1297) 仲春月일에 序文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蒙山の 三轉語는 그 후 高麗에 전해져 釋贊이 편찬한 白雲景閑(1298-1375)의 《白雲和尚語錄, 上》에도 일부가 실려,

上堂學雲門道拄杖子…蒙山云 昨夜蜚螟吸乾東海 蝦蟹魚龍 向什處(在甚處) 安身立命 (二曰) 水母飛上色究竟天(入) 摩醯首羅 眼裏作舞 摩醯首羅 爲甚處 不見(因甚不見) 指空和尚云…<sup>38)</sup>

과 같으나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은 거의 같고 다만 마지막 蓮湖橋의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다. 즉 이러한 사실은 蒙山과의 이 대면이 후에 高麗 佛敎界에서는 잘 알려져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蒙山을 찾아간 열 사람중 蒙山이 인정한 네 聖人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각자의 행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內願堂大禪師 混丘(1250-1322) :

普鑑國師로 淸風人이며 眞靜大禪師 淸玢으로도 알려져 一然의 직계문도는 아니었으나 비의 건립에 참가하고 1289년 雲門寺의 주지직을 맡았으며 이어 麟覺寺와 寶鏡寺, 內願堂의 주지직까지도 겸임하였다. 특히 內願堂은 왕실의 願刹로서 그는 忠烈, 忠宣王 양대에 걸쳐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迦智山門의 핵심적인 승려였다<sup>39)</sup>. 《禪門寶藏錄》의 찬자로 추정되고 1293년 11월에 內願堂에 거주하면서 谷寺의 주지를, 1295년에는 寶鏡寺의 주지도 겸하였다.

38) 釋贊 編, 白雲和尚語錄, 上: 佛敎學研究會編, 韓國高僧集, 3, 서울, 景仁文化社, 1974. p. 33. 影印本.

39) 蔡尚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1. pp. 109-110.

(2) 靖寧院公主<sup>40)</sup> 王氏 妙智 : 忠烈王의 公主로 貞和宮主의 소생이다.

(3) 明順院公主<sup>41)</sup> 王氏 妙惠 : 忠烈王의 公主로 貞和宮主의 소생이다

(4) 前都元師 上洛公 金方慶 (1212-1300) :

본관은 安東, 16세에 散員으로 출발하여 監察御史, 1263년에 知御史臺事, 1269년에 元에 사신으로 갔다. 1270년과 1273년에 삼별초를 진압하여 開府儀同三司의 작위를 받고 1274년 日本征伐에서 실패하였다. 1281년의 日本征伐에도 실패한 이후 推忠靖難定遠功臣, 三重大匡僉議中贊判典理司事世子師를 지냈으며 1295년에 84세로 上洛郡開國公에 봉해졌다. 특히 그는 入元의 행적이 많아서 1265 (1차), 1269 (2차), 1273 (3차), 1274 (4차), 1276 (5차), 1280 (6차) 년의 기록<sup>42)</sup>이 있으나 본 연구 자료에 의하면 1296년 즉 전해인 1295년에 上洛公의 직위를 받고 다음 해에 忠烈王, 公主와 함께 제 7차로 入元하였음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5) 侍仲 韓康 (?-1303) :

본관은 淸州, 監察御使를 지냈으며 工部侍郎, 諫議大夫, 國子大司成, 翰林學士, 左僕射, 1287년에 僉議贊成事를 거쳐 僉議中贊까지 역임하였다. 시호는 文惠이다.

(6) 宰相 廉承益 (?-1302) :

본관은 瑞原, 1287년 必闔赤이 되었으며 1281년 承旨律學助教, 1287년 僉議評理에 이어 知都僉議司事, 1293년 判監察事로 왕을 따라 元에 갔으며 1301년에 都僉議中贊를 지냈다. 시호는 忠靖이다.

40) 鄭容淑, 高麗王室族內婚研究, 서울, 새문사, 1988. p. 138.

41) 上揭書, 同前.

42) 柳善永, "高麗後期 金方慶의 政治活動과 그 性格," 未刊本碩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大學院, 1993. p. 12.

(7) 宰相 金昕(忻) (1251-1309) :

金方慶의 아들이며 1279년 禿魯花로서 元에 갔으며 후에 僉議參理가 되었다. 1290년 哈丹의 침입을 물리친 공로로 判密直司事를 거쳐 知都僉議司事에 올랐다. 元에서 7년간 있다가 韓希愈(? -1306)가 죽자 贊成事咨議都僉議司事, 三重 大匡이 되고 上洛公에 襲封된 뒤에 귀국하였다.

(8) 宰相 李湜(1252-1312) :

1268년 문과에 급제하여 廣州參軍, 國學學正을 역임하고 忠烈王때 僉議舍人, 右副承旨, 知密直司事兼世子元賓, 都僉議贊成事判版圖司事 등을 지냈다. 忠宣王때 공을 세워 壁上三韓功臣이 되고 密直司使銓曹判書集賢殿大學士修國史를 거쳐 僉議政丞에 이르렀다.

(9) 尚武 朴卿 :

高麗史 列傳중 廉承益, 李汾禧(?-1278)조에서 鷹坊의 설치와 매 사육에 관련 된 기록<sup>43)</sup>이 보인다.

(10) 尚武 柳裾(瑤) :

忠烈王4年(1278) 2월에 右副承旨<sup>44)</sup>, 8월에 鄭仁卿과 判通禮로 元에 가서 韓希愈를 변호<sup>45)</sup>하고 함께 돌아옴

이상에서 살펴 본 열 사람과 忠烈王의 행적을 관련지어 볼 때 忠烈王은 太子때 부터 使行이나 人質, 元公主와의 婚姻 등의 사유로 5차례나 入元하였으며 在位 期間중에는 11차례에 걸쳐 金方慶의 무고사건과 東征事, 賀正, 賀禮 등의 일로 入元하였다.

그 중에서 8회째는 본 자료의 <法門景致>와 관련이 있어서 이 때는 忠烈王22年(1296) 9월부터 同王23年(1297) 5월까지의 8개월간 公主와 從臣 243人 從 590

43) 高麗史, 列傳, 卷第36, 廉承益, 李汾禧條.

44) 高麗史, 世家, 卷第31, 9月 丙申條.

45) 高麗史, 列傳, 卷第36, 印候條.

人을 데리고 世子의 婚姻參席과 賀正을 목적으로 하여 실제로는 元의 강압을 완화시키고 高宗46年(1259) 이후의 포로를 송환받았다<sup>46)</sup>. 回賜品으로는 여러 것이 있었으나 王과 公主는 金段衣를 받았다.

즉 1296年 겨울에 蒙山에게 萬壽上人이 와서 高麗의 열 사람이 뵈기를 청하였으니 바로 忠烈王의 入元시기와 완전히 일치한다. 또 蒙山이 十松頌과 序와 後序를 쓴 시기가 1297年 2月이니 역시 忠烈王과 公主 두 사람이 돌아가기 전과 일치하므로 이 때 蒙山の 글을 받아 왔으며 이 때 了庵元明이 跋을 붙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당시 金方慶이나 廉承益 등이 元에 간 것은 다른 史料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이들은 현실 정치를 떠난 상태로 있었으나 金方慶의 아들인 金旰은 당시 이미 세력가가 되어 있었으므로 父子가 같이 蒙山을 만나는 행적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이들의 행적에서 公主, 大臣, 名士 등이 蒙山을 모두 만나러 간 배경에는 이미 高麗에서 蒙山の 臨濟禪이 지속적으로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2) 後 序

앞의 序에 이어서 蒙山이 後序를 쓰면서 歌松의 序에서 말한 눈이 녹아 얼음이 풀리고 구름은 흩어져 하늘이 푸르러 날은 따뜻해지고 경치가 좋음을 언급하고 본격적으로 頌의 내력을 설명하였다. 찾아 온 高麗의 열 사람을 비교하면서 入道의 순서와 절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여러 소나무가 몸을 굽혀 예를 표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비록 비범한 뜻과 기개를 갖추어 각기 쓰임을 얻었으나 스스로 감지 않아서 마땅히 의지하여 살면서도 만족하게 여기고 있으니 여러 삼매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이에 蒙山이 말하기를, 聖에 드는 처음과 끝에는 妙가 차례로 필요하고 과거의 쌓인 것을 문득

46) 金惠苑, “忠烈王 入元行祿의 性格.” 邊太燮 編, 高麗史의 諸問題, 서울, 三英社, 1986. pp. 806-807.

덜어내니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사물밖의 눈이 열리는 것이라 기이함을 없애고 삼매를 얻어 현묘의 경지를 얻으니 오직 네 眞人으로 東山(良介)의 법이 번창하고 종풍이 범상치 않으며. 여러 소나무는 여섯 사람의 평범한 사람이다하니 이에 경배하여 이르기를

“우리들은 다행히 序와 頌을 듣게 되어 業障이 갑자기 없어지고 각기 특출한 여러 소나무를 보니 그 모양은 俗에 물들지 않고 그 기상은 뛰어나서 그 중에 靈, 妙, 智, 古의 네 그루는 그 이름은 들었으나 그 형을 볼 수가 없고 定, 惠, 行, 願의 네 그루는 그 빛과 좋은 향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 戒의 소나무는 푸르름이 뛰어나고 완전히 특이하여 가히 경배하고 가히 존귀한 것입니다. 新의 소나무는 그 잎과 가지에 빛이 서리어서 범상을 넘어 聖의 경지에 다달아 뜻과 기운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들은 일찌기 어디서 장애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소나무를 보니 끝 없는 연민의 바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청컨대 바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청하니 蒙山이 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바른 믿음을 내지 않았으며, 선종의 直指를 믿지 않으며, 비범한 氣志가 있지 아니하며, 화려함을 버리고 實을 취하지도 않으며, 선지식의 진실을 대우하지 않으며, 생사의 큰일을 알지 못하며, 세속의 정을 문득 버리지 못하여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만을 믿고 뜻을 풀어 허물어 되게 하며,

바른 깨침과 바른 눈을 얻지 못하여 열지를 못하니

이런 까닭에 열 그루 나무의 體가 實로 쓰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비범한 눈은 가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에 따라 만약 바른 믿음을 내기에 다하고 명예와 이기심 버리기에 다하며 속된 정을 버리기를 다하면 정각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蒙山은 高麗의 열 사람에 대한 禪知의 평가와 入道로 나아가는 방법과 절차를 보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3) 伏觀 (공경하여 우러러 봄)

이 내용은 위의 十松에 대한 蒙山의 頌과 序와 後序를 갖추어 그 내용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高麗의 長老인 了庵元明이 정리하고 刻板할 목적으로 간단하게 始末을 붙인 것이다.

여기서 元明은 蒙山과의 대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蒙山이 일지기 庵子앞의 땅을 따라 솟은 열 그루의 소나무를 보고 그 까닭을 물으니 高麗로부터 온 것이다. 和尚이 序와 頌으로서 이 일을 보이니 심상한 일이 아니다. 역시 도에 들어가는 절차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귀감이 되는 것이다. 이에 板에 새겨서 널리 전하고자 한다.

하며 스스로 蒙山의 門人임을 밝히고 있으니 현존의 기록으로는 了庵元明을 확인할 수 없고 다만 蒙山의 맥을 이은 高麗人으로 짐작할 뿐이다.

## VI. 맺 음 말

이상과 같은 연구에서 筆者에 의하여 처음 발견된 《諸經撮要》의 書誌的 分析과 더불어 合綴되어 있는 蒙山 德異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高麗부터 시작된 그와의 교류와 특히 十松頌을 통한 入道の 요점과 연관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밝혀진 몇가지 사실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筆寫本 《諸經撮要》의 앞 부분은 다른 자료와 유사하지만 중간 이후의



〈蒙山行實記〉부터의 내용은 모두 蒙山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 약 4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둘째, 그 중에서 〈法門景致〉는 混丘를 비롯한 열 사람의 高麗人이 蒙山을 만나 고자 하므로 蒙山이 그들을 테스트하는 三轉語와 十松頌으로 入道의 절차와 龜鑑을 보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특히 열 사람은 內願堂大禪師 混丘, 靖寧院公主 妙智, 明順院公主 妙惠, 前都元師 上洛公 金方慶, 侍仲 韓康, 宰相 廉承益, 宰相 金旰, 宰相 李混, 尚武 朴卿, 尚武 柳裾이며 그 밖에 了庵元明 長老, 覺圓上人, 覺性上人, 妙孚上人, 仲孚上人, 萬壽上人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1295년을 전후하여 蒙山 德異가 거처하는 休休庵을 다녀갔으므로 이미 당시에 蒙山の 臨濟禪風을 본받고자 高麗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셋째, 열 사람이 蒙山을 찾은 그 시기는 忠烈王이 두 公主를 데리고 同王22年(1296) 9월부터 同王23年(1297) 5월까지의 8개월간 從臣 243人 從 590人을 데리고 世子の 婚姻參席과 賀正을 목적으로 하여 入元하였던 그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더불어 混丘를 비롯한 公主, 大臣, 名士 등이 한꺼번에 그를 찾았다면 蒙山은 당시의 高麗에서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넷째, 蒙山은 新松, 戒松, 定松, 惠松, 行松, 願松, 靈松, 妙松, 智松, 古松을 高麗에서 온 사람들과 入道의 절차에 비교하여 頌을 내려 설명하고 정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이런 十松頌은 了庵元明에 의하여 木板으로 간행하려고 준비되었으며 전체의 내용에서 〈蒙山行實記〉를 비롯하여 註般若心經序, 休休庵銘 등 거의 대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기록들이라 朝鮮時代에 들어 蒙山の 저술이 빈번하게 간행되고 諺解되는 이면에는 이와 같은 많은 行績과 著述이 누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蒙山 德異는 中國 元代の 臨濟宗을 대표하던 사람으로 특

히 楊岐波에 속하고 高麗의 混丘, 萬恒과는 직접교류를 하였으며 훗날 懶翁, 千熙, 庶鑑 등과는 시대를 달리하는 간접교류로서 그 맥이 이어져 朝鮮으로 이어지는 禪宗界에 끊임없이 영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새 자료가 추가되어 蒙山研究와 더불어 高麗佛敎史와 朝鮮으로 이어지는 臨濟宗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부 록〉

法門景致

子於丁丑(1277)夏季 謝事灑山 養閑于中吳 卓  
 小庵 藏拙名曰休休 乙未(1295)冬有 了庵元明 長〔老〕  
 覺圓上人 覺性上人 妙孚上人 等八友 自三  
 韓來 同樂寂寥 丙申(1296)夏 仲孚上人 四友歸 冬季  
 萬壽上人 來云 高麗國 內願堂大禪師 混丘  
 靖寧院公主 王氏 妙智 明順院公主 王氏 妙惠  
 前都元師 上洛公 金方慶 侍仲 韓公康 宰相 廉公  
 承益 宰相 金公昕 宰相 李公混 尚武 朴公卿 尚武 柳公裾  
 諸位 再三致意 休休長老 遠聞上庵 寂寥無際 妙有眞  
 樂 肯分施 三韓信向者 否答曰 請上人 問了庵長老 看是  
 夜門前 有松十株 從地湧出 體相威儀 所蘊奇特  
 各各不同 起人敬重 子問其故而衆松 答曰 近離高麗  
 來探了庵 及見休休主人 子問曰 有名 否答曰 有一日新  
 松 二曰戒松 三曰定松 四曰惠松 五曰行松 六曰願松 七日靈松  
 八曰妙松 九曰智〔〕 十曰古松 子曰 汝等要見 休休主者 下得三  
 轉語 方許入門 僉曰乞舉話 予垂語云 昨夜 螻蛄吸乾  
 東海 蝦蟹魚龍 在甚處 安身立命 二曰 水母飛上色

究竟天入 摩醯首羅 眼裏作舞 摩醯首羅 因  
 甚不見 三曰 蓮湖橋爲一切人 直指明眼人因甚落  
 井 皆不能答〔下〕曰 予居且門外 四聖往來觀瞻 莫不讚嘆  
 六凡往來 悉不能見拜 而問曰 聞有十株奇松 自高  
 麗來 從地湧出 四聖皆見 我等六凡 業障重故 有眼  
 莫覩 敢請和尚 慈悲開示 予曰 汝等 實有信根  
 當爲頌出 仍以序文 各各伸之 願汝衆信 正眼豁開  
 洞鑑玄妙 元貞丁酉(1297) 仲春月旦 蒙山 德異 序

新松

靈苗得地 善自立身  
 五欲八風 搖動憾不  
 葉濃根壯 冬夏常青  
 一行三昧 資持枝柯  
 日月增長 決成大樹  
 普蔭君生

頌曰

樹小根靈 衆莫欺  
 發心仰見 〇歲時  
 茯苓決定 有生日  
 十力全彰 妙可期

戒頌

立身端正 忘念不生  
 雖然枝葉 交加一一  
 任緣發現 受行一相  
 三昧終身 不作諸惡  
 修上上十 善道增長  
 越聖靈根 期開覺花  
 供養諸佛

頌曰

身心清淨 無持把  
 枝葉婆娑 有發揮  
 歷歷大夫 饒益行  
 衆生受蔭 樂無爲

定頌

心身靜四 大俱忘塵  
淨風清境 界明妙任  
不動三昧 力諸通〇  
次第發光 南柯北枝  
各知宿命 諸禪三昧  
三摩鉢底 能出能入  
知他衆生 有貪等心  
自生熱惱 以無言言  
勸令覺悟

慧松

定根深妙 身壯葉濃  
心淨而明 觀諸法界  
得十種智 生如來家  
行深般若 任智光三  
昧力加被 枝葉根株  
各說妙法 饒益群生  
作急修行 同登聖地

行松

一心堅固 衆妙應機  
自葉至根 各得方便  
以十種慧 立葉建功  
方便三昧 入無量世  
界網現種 種名色身

頌曰

根深不拍 風搖動  
樹正從教 月影斜  
抹過四空 三昧妙  
寶釵葉裏 現奇花

頌曰

葉妙根靈 法法通  
通身是口 勢如龍  
當機辯或 清風起  
遍界群悟 生苦空

頌曰

大夫心是 普賢心  
三昧無罪 功德林  
法界藏爲 身可鑑  
點頭領悟 是知音

不壞世間 相施出世  
間德廣集 大福智取  
四等善根

願松

自小立誓 取佛菩提  
身力遂心 枝柯雄壯  
根般大地 葉覆娑婆  
以大智慧 光明三昧  
德普蔭 一切法界  
衆生諸佛 末運之中  
竭力扶宗 樹教  
盡未來際 此行無窮

頌曰

盡未來際 蔭群生  
此誓難忘 妙有靈  
三世佛界 從行貴  
圖不變〔 〕 四時清

靈松

篤信自心 具足諸妙  
以普光明 三昧資養  
根株忽然 五眼開明  
捨有爲行 承本願力  
不墮無爲 任十自在  
三昧縱諸 枝柯花葉  
發揚差別 機智各具  
四無礙智 作妙法施主

頌曰

葉盤如蓋 絲垂地  
妙任無爲 生茯苓  
恰似耳聾 三日者  
大機種智 頓圓明

妙松

以十定功 德圓等覺  
家風枝葉 根株得大

頌曰

九帶三玄 俱列下  
碧雲堆裏 現龍盤

自在塵塵 刹刹諸佛  
座前現身 入毗盧遮  
那如來藏 身三昧受  
諸佛稱讚 摩頂在定  
開演諸佛 因果

智松

十力功圓 普賢行滿  
於一切法 性最正覺  
具足無量 三昧圓現  
一切神通 枝枝葉葉  
若根若株 悉放最勝  
光明普照 一切法界  
一切衆生 等好妙利  
一切惡道 忽爾皆空

古松

根盤冥劫 形現人間  
福地栽培 生長枝葉  
自必至老 翁鬱可觀  
傲雪凌霜 具諸功德  
廣施饒益 能事已圓  
果證四真 收攝靈妙  
大寂定中 三昧高明  
大達皆知 貴物堪爲  
景致且留 此枯壯觀 法門

爲雨普饒 益十聖  
猶來枝上 看〔 〕

頌曰

乳入土兮 來琥珀  
擣中傾出 子好麻  
聖賢等覺 退身立  
四等家風 妙莫加

頌曰

皮膚枝撲 盡消鎔  
留此枯椿 驚大雄  
傳語後生 高着眼  
開花且不 籍春風

後 序

說序歌頌 已雪消氷釋 雲散天清 日暖風和 景明物暢 諸松鞠躬 作禮謝曰 我等雖具 超凡志氣 各得受用不同 自以爲奇生 滿足想 今聞開示 諸三昧(一) 入聖 始終次第 要妙白蘊 頓除心地 清明 格外眼開 解奇特溥 得無巴鼻 三昧見徹 玄妙猶臭 惟有四眞 富貴東山 家法非常 諸松語未 意六凡羅 拜而言曰 我等多幸 聞序聞頌 業障頓清 得見諸松 各有奇特 體用不俗 氣象非常 乃於其中 有靈妙智古 四松 但聞其名 不見其形 定憲行願 四松 見其恍惚 其清香 乃見戒松 非常青秀 十分奇特 可敬可尊 新松身分 枝葉有光 入聖超凡 具足志氣 不知 我等尚有 何處 爲障礙 今觀諸松 不能的了 望賜憐憫 願聞直言 予答云 汝等 未發正信心 未信禪宗直指 未有超凡志氣 未能去華取實 未遇眞善識知 未知生死事大 未能頓捨凡情 但憑已見 意解爲咎 未得正悟正眼 未開是故不見十松 體用實 非凡眼可觀 汝等從此 若能 發盡正信心 捨盡名利心 捨盡凡情 却來喫棒 元貞三年 二月初二日 蒙山 德異 後序

伏 覲

老和尚見 松十株 從地湧出 立于庵前 聞其故則 曰自高麗來 和尚以序以頌 示之此事 異於尋常 亦入道程節 始終之龜鑑也 庸是抽衣 資板 以廣其傳 門人 高麗國長老 了庵元明 題

蒙山行實記 末

……

至元 混一大丞相 伯顏平吳 武暇詢決 禪要〔咨〕合確  
請出世於 嘉興之澗山 固辭弗逾年 勇退 承天覺庵  
眞延師分座 未幾檀越 素軒蔡公 施庵以居之 扁曰  
休休 別號絕牧 方以大隱 爲適學者 飲風屢滿  
於是 虛問鍾齋 化治朝扣 暮鎔色無 少倦每誠 來學決志  
於道直須 甘若茹寂 捨盡凡情 以大悟 爲入門  
深窮遠到 洞徹玄微 毋得 少以自謾 毋務 速以起傲  
毋逐 末以忘源 汝志匪劣 或〔懈〕不器于成 汝行匪懈  
或詣于極三教 達〇質疑 求益  
歲無虛日 高麗遣使 問道 及靜〔靖〕寧明順兩處〔公〕主  
大臣各士 皆函願誠 普說繪像 而師事之遺〔 〕  
願堂滿繡 此後

休休庵銘

報居六欲 難免輪迴 修至四禪 未爲解脫 三賢十聖 累劫多生 行人所不能行  
捨人所不能捨 力所求者 大法也 洞明大法者 謂之大夫 佛祖直指 省力之妙  
予幸得之 退步卓庵 祈遂十誓 與具大志 氣者同一 受用上報四恩 下資三有  
故成銘曰

娘生幻體	水上浮子	既爲釋子	於世何求
卓庵宜小	立志宜優	諸俱緣捨	一味休休
洗滌心腹	更新耳目	一念不生	絕榮絕辱
素淡嚴冷	城市山谷	凡聖混蹤	風清氣肅
寂寂寥寥	門境如秋	靈光燭耀	破暗燭幽



洞乎玄妙	玄妙系留	根塵洗淨	永斷沉浮
虛明絕際	靈妙俱備	湛兮無爲	自然機智
蕩蕩何依	廻超三句	任運縱橫	不居地位
非聖非凡	青出於藍	不立涯岸	不飾衣衫
無法可授	無禪可談	飢飡渴飲	薑辣鹽鹹
三三六六	一貧常足	應用有餘	未嘗積當
八八九九	精金美玉	體用如斯	曾見絕牧

### 註般若心經序

眞空湛寂 了無諸佛 象生忘念 昏迷致有 象生諸佛 以毒功毒 將塵洗塵 毒消塵淨 果顯其因 聖著凡彰 利見其害 大智復明 因之本玄機全淨 妙之因自度度 他四果發 高超之志 先覺覺後 二乘捨挾 劣之心求十力 菩提慕 一切解脫 以大般若 證眞涅槃 入十科之 奇功六百卷之妙義 一心總攝 數句全彰 是謂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也 嗚呼 末運初機 緇素咸誦之曰 多心經傷哉 實可憫也 由是爲之眞註

### 參 考 文 獻

- 郭 明. 中國佛教簡史. 福建, 福建人民出版社, 1990.
- 金惠苑. “忠烈王 入元行續의 性格,” 邊太燮 編. 高麗史의 諸問題. 서울, 三英社, 1986. pp. 800-824.
- 南權熙. “蒙山和尚六道普說 諺解本の 書誌의 考察,” 어문논총(경북어문학회) 제25호(1991), pp. 63-74.
- 閔泳珪. “蒙山 德異와 高麗 佛教,” 六祖壇經의 世界. 서울, 民族社, 1989, pp. 11-19.

- 朴相國. “現存 古本을 통해 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의 流通,” 書誌學研究. 第4輯 (1989, 12), pp.125-159.
- 徐閔吉. “高麗末 臨濟禪의 受容,”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編. 韓國禪思想研究.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4. pp.201-243.
- 釋瓊 編. 白雲和尚語錄, 上: 佛教學研究會編, 韓國高僧集, 3, 서울, 景仁文化社, 1974. 影印本.
- 野上俊靜 外. 中國佛教史概說. 梁銀容 譯. 裡里,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4.
- 柳善永. “高麗後期 金方慶의 政治活動과 그 性格,” 未刊本碩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大學院, 1993.
- 李承休. 勤安居士文集(雜著). 서울, 景仁文化社, 1993. 影印本, pp.209-214.
- 鄭容淑. 高麗王室族內婚研究. 서울, 새문사, 1988.
- 蔡尚植. 高麗後期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1.
- 韓國佛教思想史 刊行委員會 編. 韓國佛教思想史. 서울, 東方佛教研究所, 1994.
-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異本六種.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0.
- 韓基斗. “休庵坐禪文 研究,” 韓國文化와 圓佛教思想: 文山 金三龍博士 華甲 紀念. 裡里,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5, p.649-677.
- 韓基斗. 韓國禪思想研究. 서울, 一志社, 1991.
-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 許興植. “蒙山德異(1232-1298?)의 行績과 年譜,” 韓國學報. 第77輯 (1994. 겨울), pp.220-226.
- 許興植. “高麗에 남긴 鐵山瓊의 行績,” 韓國學報. 第39輯 (1985. 여름), pp.118-130
- 忽滑谷快天. 朝鮮禪教史. 鄭湖鏡 譯. 서울, 寶蓮閣, 1978.

## A Bibliographical Study of 《Jae Kyung Chwal Yo : 諸經撮要》 and the Exchange of Mongsan(蒙山) and the Elite Class of Koryo Buddhism

###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bibliographical analysis of the 《Jae Kyung Chwal Yo》 and historical research of Buddhism in the period of king ChungYeul (忠烈王).

The analysis is made in the respects of :

- 1) physical form
- 2) historical aspect of the Zen Buddhism in the latter period of Koryo Dynasty
- 3) related persons who corresponded with Mongsan(蒙山)

First, this books is consist of 56 records about tripitaka, biography of Mongsan, poets of Zen Buddhism, and abstracts of Buddhist books.

Secondly, the new trends of Buddhism in the 13th century was infuenced by Mongsan Son(禪; contemplate school, zen). He was corresponded with some political persons and the elite class of Koryo Buddhism. Because of these meetings, LimJae(臨濟) Son were adopted main stream of zen Buddhism in Koryo Dynasty by Mongsan and his accompan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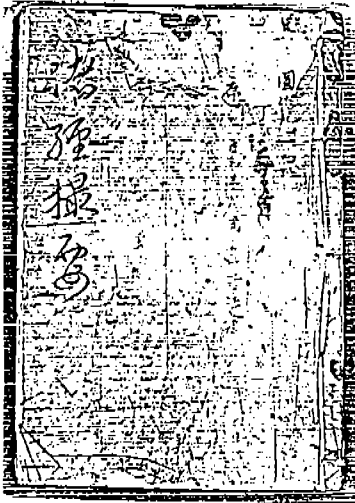
Thirdly, these political groups want to meet Mongsan and his teaching about zen Buddhism, but he suggest three questions to the group instead of meeting. And he explained 10 kinds of methods to study zen Buddhism

comparing visited ten persons with ten pinetrees.

In the Koryo Dynasty, Buddhism was very important in history of thoughts and social functions. But there had been little research on Mongsan who afford theoretical base on zen Buddhism in Chosun(朝鮮) Dynasty.

On the point of the relation to Koryo and Yuan(元) dynasty in zen Buddhism, The <Bup Mun Kyung Chi; 法門景致>is a new and important records that afford some solutions of religious branch and trends in early periods of Chosun Dynasty

1. 《諸經撮要》의 表紙



2. 休休庵銘

休休庵銘

報者六欲猶心輪迴於世心解未為解脫三賢十  
聖者勤多生行人所不能行捨人所不能捨力所不能  
法以明夫法者謂之丈丈夫律但且指者力之歟乎  
幸得之遊步幸處所遊斯事聖世其大志孰若同  
一受用上報 曰恩不齊三有故教於  
娘生幻休 水上浮漚 既為教子 於世何求  
幸慶宜小 立志宜優 許世教格 一味休休  
洗滌心腹 更新耳目 一念不生 絕無煩惱  
素淡冷 城市山谷 凡此欲改 風清免雷  
寂之寧 門境如秋 室火煖蟻 破時時幽  
洞乎玄秋 心妙常留 根塵洗淨 水斷沈浮

虛仍他險 靈秋供留 滿寺無恙 自欲撰寫  
第何何策 迫進上句 任運提携 不登即住  
非登非九 青出於藍 不登海岸 不歸天形  
垂法可授 無碑可設 飢食渴飲 苦盡甘甜  
三三六六 一翁常足 應月有餘 未嘗積勞  
八八九九 精舍幾至 休用如斯 曾見絕致

3. 《法門景致》

法門景致

予於丁丑夏李謝事巖山中養閑于中送官甲  
小庵藏拙名曰休休庵冬有丁元明張長  
覺圓上人覺性上人妙季上人等八友自三  
韓來同樂寂峯山中夏仲季上入四又歸各季  
真壽上人來云 高麗國內氣者天祥師法至  
靖寧院外主壬氏妙智 明順院公壬氏妙德  
前都元帥上落公金方慶 侍中韓公康 宰相庚公  
子益宰相全公新宰相全公洪 尚書朴公卿 尚書朴公  
諸位再三致意仗仗長老遠聞上庵寂寂無餘妙有真  
德嚴嚴三韓結滿瀟瀟客曰詩上人問了庵長老看是  
殿門前有松十株從地湧出條相摩儀所摩奇持  
各各前起人敬重常聞其致而家松卷曰近誰高漢  
來探香庵及見休休主人予問可身若否答曰奇世  
松三戒松三日定松四思松五日行松六白雲松七日靈松  
八曰秋松九曰古松予曰汝等要見休休主者下得三  
轉路方許入門余曰先擊許予垂語云昨夜難寐吸乾  
來汝懶懶多龍在甚處安身今令三日水母飛上色  
究竟天人摩敵首眉眼重來作舞弄驗首眉眼因  
甚不用三白蓮湖橋為一切人直指明眼人因甚落  
井豈不能奪予君且門外四聖徒來觀瞻莫不讚美  
六凡徒來志不第見拜而問曰聞有十株奇松自高  
巖來後汝湧出四聖皆見我者於九業障重旋有眼  
莫親敢請我為志此信謂予予曰汝等實有信最  
普為顯出何以序文各各伸之氣此家信之眼露開  
洞懸主秋元貞了箇仲春日丑蒙山岩異序